

numbers 제 110호



주요 내용

2021.09.02

1. 이번 주 주제 : [지방 소멸]

- 30년 후, 전국 시군구의 69% 소멸 위기!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19 일반 국민 조사] 우리 국민 코로나 장기화로 '지치고 방전됐다' 58%
-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나라 국민,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33%)보다 '반대'(53%)가 높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30년 후, 전국 시군구의 69% 소멸 위기!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아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다. 조선 건국 후 한양이 도읍지로 정해진 이래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서울앞이’를 해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울로, 서울로’를 한 결과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이제는 ‘서울민국’,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도 지방에서는 ‘인서울’ 대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를 목표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 그동안 정부 부처들을 지방 곳곳으로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꾀했으나, 세종시 근무 공무원 자녀의 72%가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있을 만큼 사람들은 서울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감소가 맞물려 향후 사라질 지역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약 30년 후인 2047년에는 전국 시군구의 69%가 소멸 고위험단계(해당 지역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명 당 20-39세 여성이 2명 미만인 경우)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멸위험 지역은 대부분 전남과 경상도에 집중돼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0호에서는 지역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살펴보고자 ‘지방소멸’에 대해 다룬다. 수도권 집중 상태와 향후 전망, 그리고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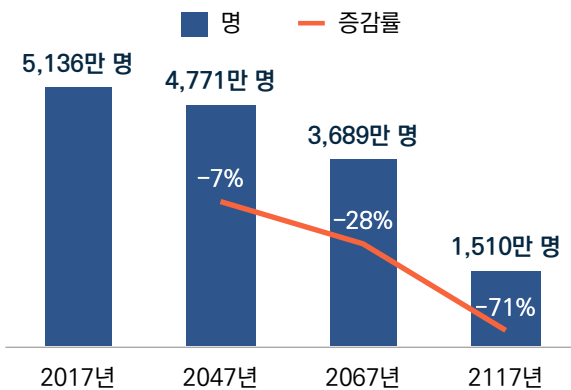
1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 71% 감소!

- 지난 7월 감사원에서 초장기 인구추계를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대비 30년 후인 2047년에는 7%가 줄어들고, 50년 후인 2067년에는 28%, 그리고 100년 후인 2117년에는 71%나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림] 전국 총인구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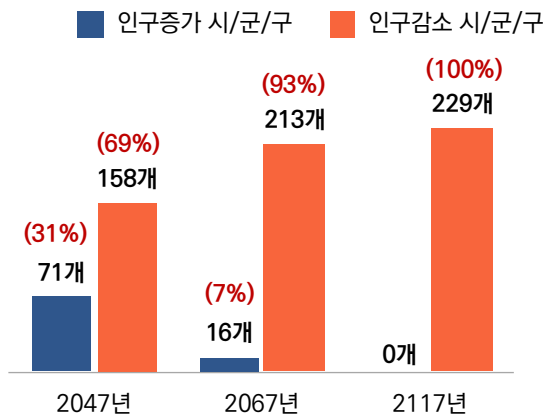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

● 100년 후 총 229개 시군구 중 200개(87%) 시군구 폐지 또는 존폐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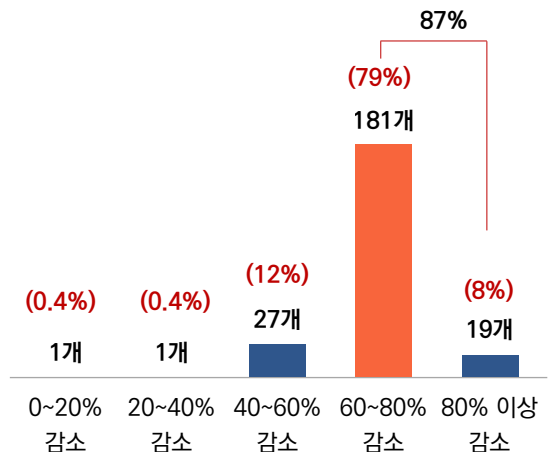
- 시군구별로 보면,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58개(69%)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2067년에는 무려 93%(213개)의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하며, 2117년에는 모든 시군구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 2117년에 현재 인구의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가 19개인데, 이 19개 시군구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인구의 60~8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181개 시군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개 시군구가 폐지되거나 존립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시군구별 장기 인구 변화



* 자료 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

[그림] 100년 후(2117년) 시군구별 인구 변화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포스터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획', 2020.07.06.(통계청, KOSIS 인구이동통계를 이용하여 감사원 분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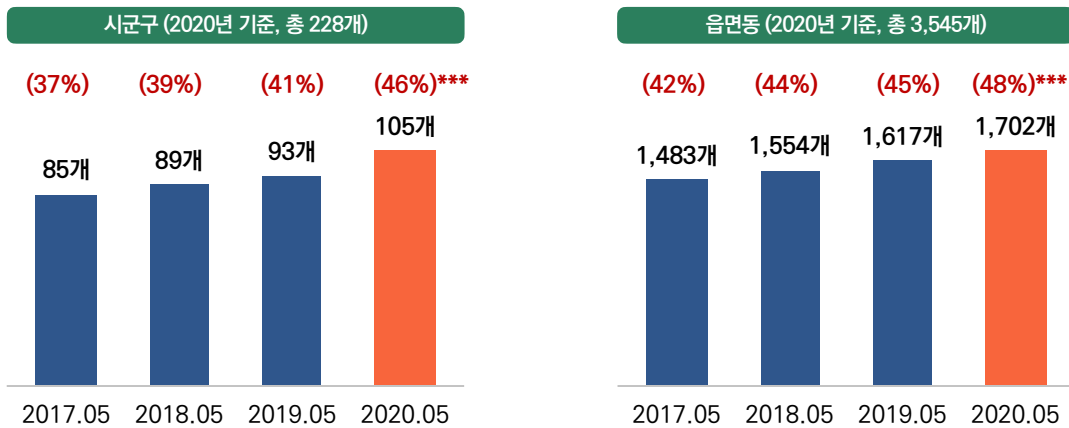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의 46%, ‘소멸위험지역’

- 한 지역의 인구가 너무 줄게 되면 더 이상 하나의 지역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통합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소멸위험지수’이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본다.
- 지난해(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개로, 이는 2019년 93곳보다 12개 지역이 증가한 수치이며,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 역시 2019년 보다 85개나 증가했다.

[그림] 각 연도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17~'20)

(단위)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포스터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2020.07.06.(통계청, KOSIS 인구가동통계를 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함)

**여기서는 제주도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3쪽의 229개 시군구를 228개로 조정하였음

*** ()안은 전체 시군구(읍면동) 중 소멸 위험 지역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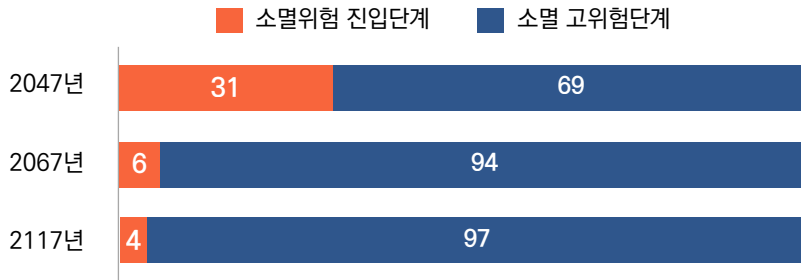
[참고] 소멸위험지수 -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

구분	소멸위험지수	예시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당 20~39세 여성이 15명 이상인 경우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 30년 내에 전국 모든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진입!

- 소멸위험지수는 점점 높아져서 2047년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시군구)이 소멸위험 진입단계가 되며, 이 중 고위험 지역이 69%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약 50년, 100년 후에는 고위험지역이 94%, 97%로 확대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장래 인구추계에 따른 소멸위험 시.군.구 예상 (%)



* 자료 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
 **소멸위험지역, 소멸고위험지역 설명은 4쪽 하단부 참조

● 소멸위험지수 상위 10개 지역 대부분은 전라남도와 경상도에 분포!

- 2047년 소멸위험지역 1위는 경북 군위군인데 소멸위험지수 0.040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일 때 20~39세 여성 인구는 4명에 불과해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상위 10개 지역은 거의 모두 전라남도와 경상도 등 지방에 몰려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인천 강화 한군 데 있다.

[표] 미래 소멸위험지수 상위 10개 시.군.구

2047년				2067년				2117년			
순위	시도	시군구	소멸 위험 지수	순위	시도	시군구	소멸 위험 지수	순위	시도	시군구	소멸 위험 지수
1	경북	군위	0.040	1	전남	구례	0.020	1	전남	고흥	0.018
2	전남	고흥	0.043	2	경북	군위	0.027	2	전북	무주	0.019
3	전남	구례	0.045	3	경북	청송	0.029	3	경북	군위	0.019
4	경남	산청	0.047	4	전남	보성	0.030	4	전남	구례	0.020
5	경남	합천	0.048	5	전남	고흥	0.032	5	전남	보성	0.021
6	경북	청송	0.049	6	경남	산청	0.032	6	경북	봉화	0.021
7	인천	강화	0.050	7	경남	합천	0.033	7	경북	고령	0.021
8	전남	보성	0.050	8	전북	무주	0.033	8	경남	의령	0.023
9	경남	남해	0.050	9	전남	진도	0.033	9	전북	장수	0.023
10	경북	의성	0.050	10	충남	청양	0.034	10	경남	합천	0.024

* 자료 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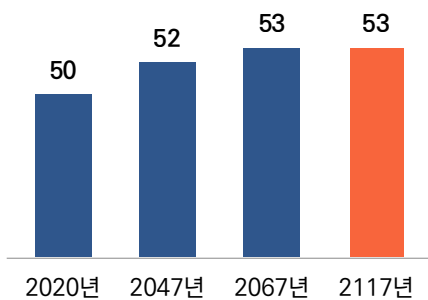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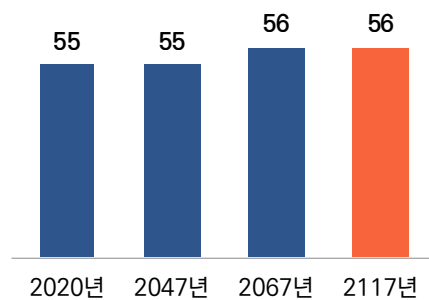
인구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화!

- 우리나라 인구 수 감소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2020년에는 전국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50%를 차지했는데 2047년에는 52%, 2067년에는 53%로 늘어나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았다. 2047년에는 전 연령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2%로 예상되는데 청년층은 그보다 3%p 높은 55%, 2117년에는 전체 평균이 53%, 청년층이 56%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추계(2020~2117년) (%)



[그림]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추계(2047~2117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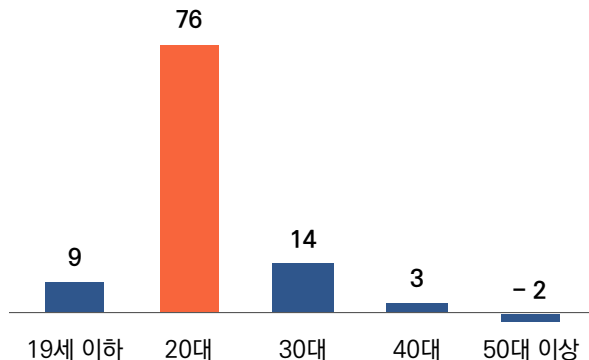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 (통계청 자료 재구성)

● 수도권 유입인구 10명 중 9명은 2030세대!

- 실제로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였다. 2020년 3~4월 수도권 유입인구 중 20대 비중은 76%, 30대는 14%로, 수도권 유입 인구 10명 중 9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20년 3~4월 연령별 수도권 순유입(유입-유출) 인구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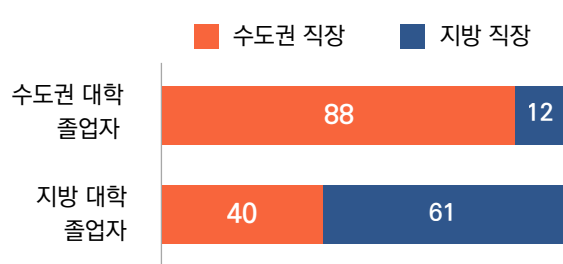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포스터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2020.07.06.(통계청, KOSIS 인구이동통계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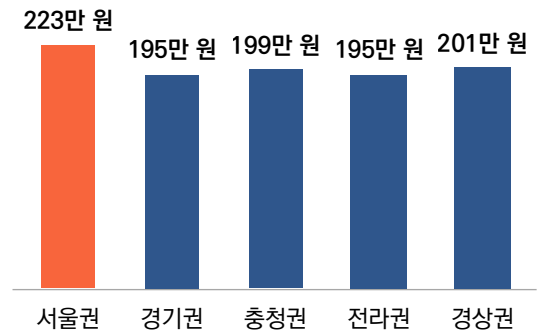
●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수도권 이동이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

- 지방소멸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맞물려 있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 진학 및 수도권 일자리 취업과 연관된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에 취업하는 비율은 12%인데 반해, 지방 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비율은 40%로, 지방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지방 대학 졸업자들보다 첫 일자리 소득이 높아, 이러한 연유로 수도권 대학 진학을 선호하고, 일자리 역시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선호한다.

[그림] 대학 소재지별 취업 소재지(2018년) (%)



[그림] 출신대학 소재지별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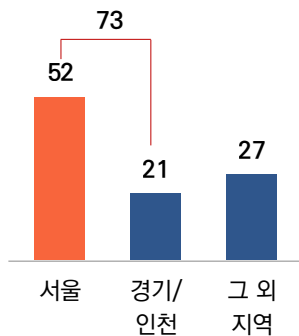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고용정보원, '연도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2018, 자료를 감사원에서 인용)

● 지방 청년의 지역 유출 이유 1위, '양질의 일자리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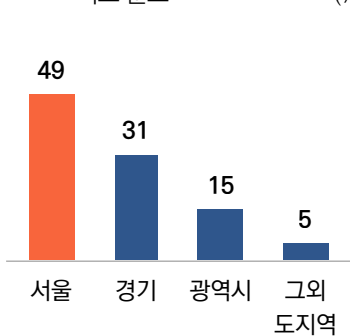
-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 2019년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회사* 2,278개의 소재지 분석 결과, 서울 52%, 경기/인천 21%로 수도권이 총 73%를 차지했다.
- 양질의 일자리(지역 일자리 질 지수 상위 집단)도 서울, 경기도에 대부분(80%)이 몰려있다. 각 지자체의 인구정책담당자는 해당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 1순위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 일자리 지수 : 지역의 일자리 질이 얼마나 높은지 수치화하여 4가지로 등급화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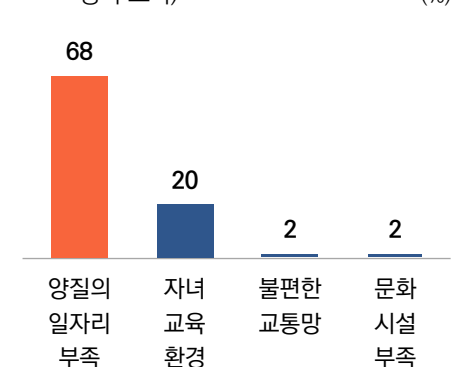
[그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회사의 지역별 분포* (%)



[그림] 양질의 일자리(지역 일자리 질 지수** 상위 집단 39개)의 시도 분포 (%)



[그림] 해당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1순위,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자 조사)*** (%)



*자료 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 (금감원 제출자료 재구성), 자산총액 합계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1 -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2019. 252개 시군구 지역별 고소득비중/고학력비중/고숙련비중 3가지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으로 지표 산출, 지역 일자리 질 지수를 4가지 그룹(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 등급화함 (위 그래프에서 상위 집단 39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표본수가 적음에 유의할 것)

***자료출처 :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 2021.0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담당자 245명 대상 설문조사, 2020.07.29.~2020.08.14.



시사점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는 그의 「인구론」에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과잉 인구에 의한 식량 부족은 필연적이며, 그로 인해 빈곤과 좌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맬더스가 살았던 때는 18세기말~19세기인데 이 시기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인구 증가의 위험을 고민했다. 맬더스는 인구 조정 기근, 전쟁 등을 겪으면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적자 생존의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 지구의 한 쪽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개발 국가들은 오히려 인구 증가 저하,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재난에 의한 인구 조절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인구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총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서 멀지 않아 인구가 줄어든다¹⁾고 하는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닐 정도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넘버스 30호 참조). 그래서 인구 절벽과 같은 위기적 언어가 익숙해졌지만, 감사원이 올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28% 줄어들고 100년 후에는 71%나 줄어들어서 100년 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00개(87%) 시군구가 폐지될 위기를 맞는다는 뉴스는 충격적이다(3쪽 참조). 이런 위기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국적 현상이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는 것은 지방이다. 소멸될 위험이 높은 시군구 가운데 거의 모든 시군구가 수도권 이외 지방 시군구이다(5쪽 참조).

‘지방 소멸’은 ‘지방 교회의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모 교단의 현실을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 교회의 비중이 70%에 달하고 지방 교회 가운데 교인 수 50인 이하가 61%(전국 교회 가운데 43%)였다.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는 교인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50년 이내에 소멸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다.

멀리 내다 볼 것도 없다. 이미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전체 시군구의 46%)로 2019년 5월보다 12개 지역이나 증가했다(4쪽 참조). 이미 지방 교회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필자가 10년 전 매해 방문했던 충남의 어느 시골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는 거의 70세 이상의 어른신들 1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고 60대 목사님이 가장 젊은 사람일 정도로 고령화된 작은 교회였다.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낀 것은 예배에 모이는 어른신들 숫자가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누구의 노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당시 그냥 답답하기만 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가 아직 존재할지 궁금하다.

우리는 지방 소멸, 지방 교회 소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서울 및 수도권 교회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서울 및 수도권이 지방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인구 위기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는 인구 증가라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누구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넘버스 30호 3쪽 참조).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코로나19 일반 국민 조사]우리 국민 코로나 장기화로 '지치고 방전됐다' 58%
2. [난민에 대한 국민 의식] 우리나라 국민,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33%)보다 '반대'(53%)가 높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코로나19 일반국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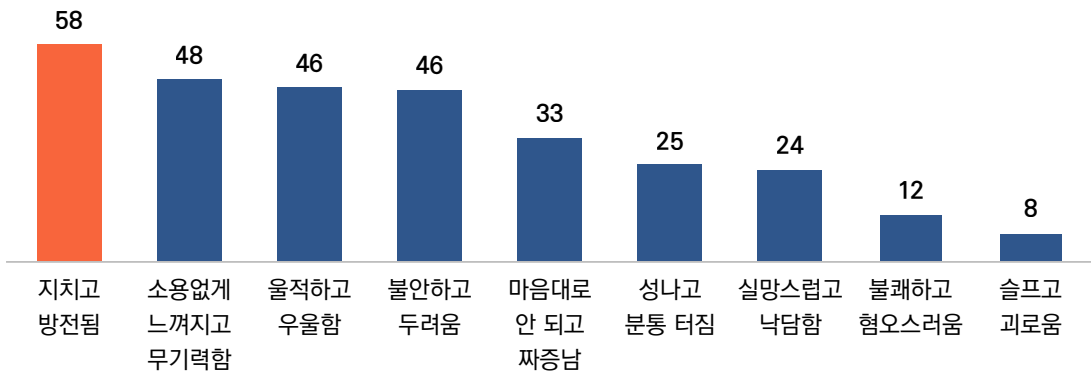


우리 국민 코로나 장기화로 ‘지치고 방전됐다!’ 58%

- KBS가 최근 발표한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현재 우리 국민의 58%가 오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방전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국민의 절반 가까이(46%)는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피로감 정도(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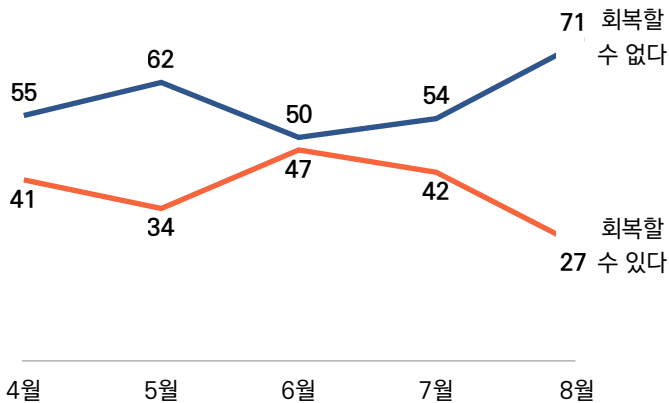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 '코로나19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변화 추이 조사 8월 결과보고서', 2021.08.31.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021.08.20.~23)

● 향후 1년 이내에 코로나19 종식 가능성 ‘낮다’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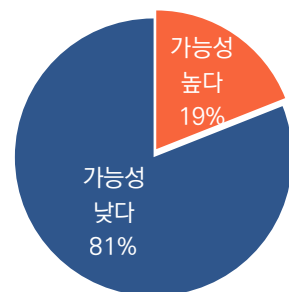
-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로 올해 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회복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 인식이 지난 6월 이후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1년 이내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대부분(81%)이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림] 백신 접종 실시로 인해 올해 안 '일상 회복' 예상 (무응답은 제시하지 않았음)

(%)



[그림] 향후 1년 이내 코로나19 종식 가능성**



*자료 출처 : KBS, '코로나19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변화 추이 조사 8월 결과보고서', 2021.08.31.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021.08.20.~23)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다소' 높다, '매우+다소' 낮다 응답률임

2.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나라 국민,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33%)보다 ‘반대’(53%)가 높아!

- 최근 아프카니스탄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인해 아프카니스탄 국민의 국외 탈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한국에 도움을 준 378명의 아프카니스탄 국민을 받아들였는데,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 올해 1월초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난민 인식 조사(2020년 말 조사) 결과, 난민 수용 의견에 있어 ‘찬성’ 33%, ‘반대’ 56%로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제주도에서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난민 지위 신청과 관련한 사건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을 시기에 조사한 결과(예멘 난민 수용 ‘찬성’ 24%, 반대 56%)보다는 찬성 의견이 9%p 올랐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있어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그림]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2018년 vs 2020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조사', 2018.07.24.(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06.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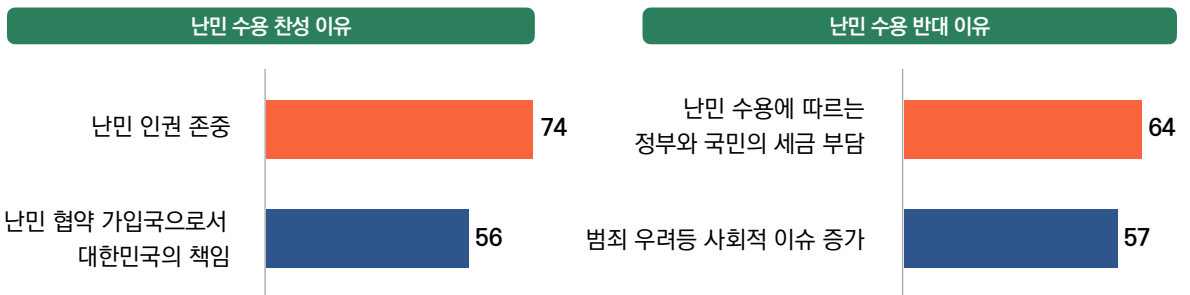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유엔난민기구 보도자료, '대한민국 난민 인식 변화 조사', 2021.01.08.(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6명, 온라인 조사, 2020년 말)

<https://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10&searchSelect=&keyWord=¤tPage=1&menuID=001006001003&finishIsYN=&boardID=27435&boardCategory=보도자료&mode=detail>

● 난민 수용 찬성 이유는 ‘인권과 책임 의식’, 반대 이유는 ‘경제적 부담/범죄 우려’

- 난민의 수용에 대해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난민 인권 존중’(74%),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56%) 등이 높았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난민 수용에 따르는 정부와 국민의 세금 부담’ 64%, ‘범죄 우려 등 사회적 이슈 증가’ 5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이유(중복 응답, 상위 2위)



*자료 출처 : 유엔난민기구 보도자료, '대한민국 난민 인식 변화 조사', 2021.01.08.(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6명, 온라인 조사, 2020년 말)

<https://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10&searchSelect=&keyWord=¤tPage=1&menuID=001006001003&finishIsYN=&boardID=27435&boardCategory=보도자료&mode=detail>

<https://www.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10&searchSelect=&keyWord=¤tPage=1&menuID=001006001003&finishIsYN=&boardID=27435&boardCategory=보도자료&mode=detail>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
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63호\(2021년 9월 1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내년 대선 결과 기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44호 \(2021년 9월 1주\) - 대선 전망, 현 국가경제 인식 등](#)

사
회

[작년 아동학대 3만건, 43명 숨져... 63%가 1세 이하](#)

동아일보_2021.08.31.

[아기 울음소리 끊긴다...출생 100명 미만 지자체 17곳](#)

연합뉴스_2021.08.28.

[외고 자사고 2곳 중 1곳 '미달' 됐다...줄어드는 학생수 '직격탄'](#)

매일경제_2021.08.29.

[애 유치원 데려갔더니 "할아버지가 오셨네요"... "저 아빰데요"](#)

조선일보_2021.08.30.

일
반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격차...취약층 지원 늘려야"](#)

연합뉴스_2021.09.01.

[10명 중 7명 이상이 시 써봐...교육 경험은 절반뿐](#)

연합뉴스_2021.09.01.

[월화수목토요일 시대 올까.. "美기업 25% 주4일제 도입"](#)

조선일보_2021.08.27.

['커피 하루 3잔'의 전설, 장장 11년의 추적 관찰로 잠정 결론?](#)

코메디닷컴_2021.08.30.

경
제

[국내기업 78% "코로나 위기 극복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_2021.08.31.

[상장기업 평균임금 남성 8천만원 vs 여성 5천만원...1.6배 차이](#)

연합뉴스_2021.09.01.

[4차 대유행 2달 째, 자영업자 열 중 넷\(39.4%\) 폐업 고려](#)

한국경제연구원_2021.09.01.

["나도 이참에 벤츠나 살까"...수입차 많다 했더니 9대 중에 1대 꼴 됐다](#)

매일경제_2021.08.27.

국
제
/
기
후
환
경
/
기
타

[\[아프칸전쟁 20년 결산\] 미군 2461명 희생·전쟁비용 1166조원… 美 막대한 피해](#)

문화일보_2021.08.31.

[지금의 해안가는 언제까지 지도에 남을까](#)

한겨레_2021.08.28.

[일상이 된 ‘극단 기후’ 위기의 동아시아](#)

한겨레_2021.08.28.

[“또 잠길라, 비만 오면 잠 설치”… ‘재난 트라우마’ 겪는 섬진강 사람들](#)

한겨레_2021.08.28.

[‘이 음료’ 하루 한 번씩만 마셔도 비만 된다](#)

조선일보_2021.08.27.

[방탄소년단 지민, 한국 브랜드 평판+한국 갤럽 휩쓴 韓원톱 인기..전 세계가 원하는 'Global it boy'](#)

스타뉴스_2021.08.28.

트
렌
드

[듀얼라이프 시대](#)

한겨레_2021.08.28.

[“부족한 1%를 채워라”… ‘MZ세대 家電’의 진화](#)

동아일보_2021.08.28.

이슈 큐레이션

[왜 정치는 네거티브 유혹 못버릴까](#)

경향신문_2021.08.29.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증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고영관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mailto: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목회데이터연구소 MOU 기관인 햇불회의 2021년 2학기 온라인 강의 안내입니다.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 탄력성있는 목회(클릭 : 강의 안내)
 - 일 정 : 9월 6일 ~ 11월 29일 매주 월요일 09:30~11:30 (24시간 시청가능)
 - 무료 등록 : 홈페이지(www.torchmission.org) 회원 가입 후 등록
- * 등록하신 분들에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